

2012.04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www.dail.org

하 다 일 공 동 체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때까지”

Action Now!

아시아를 향한 꿈...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는 아시아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곳이 또한 아시아입니다.
다일공동체가 아시아의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도전에 직면하였고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아시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 왔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아시아를 향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시아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아시아를 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아시아를 향한 꿈을 안고 또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을,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성으로 아시아인들이
키 재기, 편 가르기 없이, 모두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며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아시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각 나라 온 민족을 섬길 수 있기를,
아시아인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며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다일공동체는 아시아를 향한 꿈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다일서번트리더십 훈련센터, 아시아다일영성수련센터,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씨엠피에 세워지는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 인원 8만 명이 찾아와 참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캄보디아씨엠피에서
이미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캄보디아 지역개발 사업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캄보디아 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도 역시 다음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의 사람,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한 영혼이 이 거대한 아시아를 살릴 수 있는
아시아를 향한 꿈을 실현할 아시아인, 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섬길 12명의 족장, 24명의 장로, 300명의 용사,
500명의 제자, 2000명의 예수를 따르는 후원회원님들을 기다립니다.

아시아를 향한 꿈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2012년 4월에
작은형제 **최** 원도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2012 Action Now! 빈곤퇴출! 그리고 아시아다일비전센터
- 06 함께 나누는 이야기 평생교사의 길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 08 다일의 현장 다일천사병원
- 10 다일의 현장 다일평화의마을
- 12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6 포토에세이
- 17 밥퍼의 '밥심' 캠페인
- 18 아름다운변화 한센치고 캠페인
- 19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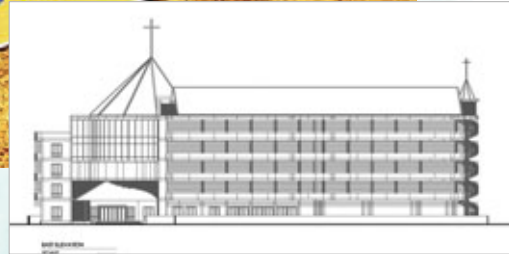


cover story

24년전 청량리 광장에 배고파 쓰러진 노인 한분에서 시작된 밥퍼나눔운동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아름다운 밥퍼나눔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Focus
2012
Action Now!



2012 Action Now!

빈곤퇴치! 그리고 아시아다일비전센터

다일공동체는 밥퍼나눔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이 진정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며 밥 굶는 이 하나 없을 때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사랑과 실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벌이는 생명운동으로 청량리에서 시작하여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에서 제3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빈곤퇴치 Action Now! 시작

: 지금, 여기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부터

청량리역에 쓰러진 노인 한명에게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밥퍼는 제 3세계 가난한 이웃들의 굶주림 현장을 보았고,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시작한 밥 한 그릇의 나눔에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버너하나와 코펠로 라면을 끓이며 시작하여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참 많은 분들

이 소외된 이웃들의 내일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아 모아져 식판위에 얹어진 것은 밥,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똑딱 해치우고 배부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사랑과 관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힘을 얻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story

밥퍼의 함태영 주방장님은 밥퍼에 오기 전 사업이 망해 거리에 나왔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노숙생활을 했고, 그러던 중 밥퍼에서 밥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밥퍼 주방장을 하며 이곳을 찾는 노숙인, 행

려자, 독거노인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합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의 어려운 심정을 알기에 오늘도 더 따뜻한 밥을 더 가득 담아 진지를 대접합니다.



story



네팔다일공동체 팀세나 부원장님은 8년 전 돈을 벌기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거리를 걷다 무료로 나누어주는 밥 한 그릇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팀세나 부원장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밥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사를 하며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과 함께 고향의 가난한 아이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네팔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사랑을 전하리라.....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져 네팔 마느하르 강변의 밥퍼 아저씨가 되어 매일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빈곤이란?

UNDP -> '역량'의 측면을 강조



인적빈곤이란 '핵심적인 능력, 즉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 지식, 경제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가능성 등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고 봄

UNHCR -> '권리'의 측면에 초점



절대빈곤을 적절한 생활수준과 시민으로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선택, 안전, 권한을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라 봄

빈곤이란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여러 차원의 안녕과 복지를 달성하는 능력의 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사회는 빈곤을 비단 먹고 사는 문제의 측면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다차원적인 결핍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감 소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겪는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 역량의 박탈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과 관련된 다차원적 역량은 빈곤을 정의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곧 빈곤감소 전략이 됩니다.

(출처: OECD 2001)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 빈곤퇴치 Action Now! 변화 :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함태영 주방장님과 팀세나 부원장님을 통해 다일공동체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밥퍼나눔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섬기는 리더로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 나눔이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3세계의 청년들도 함태영 주방장님과 팀세나 부원장님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일공동체가 함께하려 합니다. 그 변화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다일공동체는 사랑으로, 변화의 다음 발걸음인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우려 합니다.

+ 빈곤퇴치 Action Now! 사랑으로... :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세우기

다일공동체가 아시아의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온지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더이상 빈곤의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아시아다일비전센터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다일영성수련을 경험하고 나눔과 섬김의 현장체험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서번트리더십을 배우는 곳이며, 현지의 청년들에게는 다일영성수련과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더불어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진정한 서번트리더십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네! 아시아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역량강화

2007년 발행된 MDGs(새천년개발계획)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국가에서는 아직도 절반 이상의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20% 미만의 어린이만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18억 지구촌 아동들 가운데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 에이즈, 전쟁, 노동착취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한 채로 꿈과 희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동들이 바로 우리의 옆에 살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개선 등이 조화를 이룬 바람직한 교육모델 정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일공동체는 무엇보다 오직 예수의 사랑,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워 빈곤국가의 청년들에게 다일영성수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며, 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리더양성의 장이 될 것입니다.

들!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현장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빈곤의 현장에서 다일영성수련, 나눔과 섬김의 체험을 통해 나를 바로 보고, 나를 넘어 이웃을 보게 되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고민해 보며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서번트리더십으로 성장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글/ 편집부

아시아다일비전센터는

아시아의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을, 나눔과 섬김의 봉사생활을,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성으로 아시아인들이 키 재기, 편 가르기 없이, 모두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며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아시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각 나라 각 민족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섬김을 실천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은 분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어봅니다.

**다일서번트리더십훈련 센터로
아시아다일영성수련 센터로 그리고
아시아자원봉사 센터로 쓰여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해
기도와 참여로 동참해주세요.**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Action Now!하는 방법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섬길 12명의 족장, 24명의 장로, 300명의 봉사, 500명의 제자, 2,000명, 5,000명의 예수를 따르는 후원회원님들을 기다립니다.

- 12족장후원 1억원
- 24장로후원 5천 2백만원
- 300봉사후원 5백 2십만원
- 500제자후원 5십 2만원
- 2000성도후원 5만 2천원
- 5000성도후원 5천 2백원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선희 님(전 서일중학교 교장)



평생교사의 길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평생을 걸어온 교사의 길에서 '때론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참으로 행복했다며,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고 고백하는 이선희 교장선생님은 지난 2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비전트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때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착공식에 참석하여 아시아청년들을 향한 비전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벅찬 설렘을 갖고 돌아온 뒤,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벅찬 설렘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동참하시기 위해 퇴직금을 들고 한걸음에 다일공동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 공직자로 오랫동안 한길을 걸었던 이선희 교장(전 서일중학교)선생님, 40년의 교직생활을 마치며 받은 퇴직금 5,000만원을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데 후원하시고 나아가 건축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이선희 교장선생님은 그 동안 받은 혜택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며 전하는 일을 평생 실천하기로 다짐하셨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길

평생을 걸어온 교사의 길,
 때론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참으로 행복했던 길
 아름다운 학교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불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었던
 너무 큰 은혜와 축복받은 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를 위하여 삶에 대한
 '일체 은혜 감사' 로 매듭을 짓습니다.

모두들 끝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저는 처음의 부르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게는 늘 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교직을 마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섬김의 길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섬김의 길을 걸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일,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는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착공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서번트리더십으로 아시아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아시아 다일영성생활 수련원과
 씨엠립 다일커뮤니티 처치로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벽찬 설렘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퇴직금 절반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요.....



글/ 이선희

전 서일중학교 교장,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건축위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다일천사병원과 협력병원협약을 맺게 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일천사병원과의 협력병원협약 이전부터 다일공동체와 인연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저는 종합병원에 의사로 있다가 6년전 남양주 덕소에 개인병원인 연세속편한내과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자분이 위계양으로 속이 쓰리다고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주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죄라고는 전혀 모를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다일교회의 사찰집사를 맡고 계신 김철민집사님 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의 저자인 최일도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으로 계신 다일교회가 남양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협력병원으로써 여러모로 섬겨주시게 되었는데, 협력병원으로 섬기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20년전 제가 의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다일을 알게 됐고, 이번에 다일천사병원 김민준 원장님께서 환자의 협력진료를 부탁한다고 요청하시기에 기쁜 맘으로 환자를 보내주시라 답했습니다. 사실, 4년전부터 다일천사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섬기려했지만 제가 기준이 안되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다가 이젠 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의 대상자인 노숙인, 행려자,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등 소외된 이웃을 무료로 진료하시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신지요?

저에게는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고히 안고 예수님 등에 업히는 일입니다. 제가 죄가 많고 부족해서, 예수님께 꼭 안기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다일천사병원 환자가 오시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고옥 안아드리고 정성다해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 우리 병원에 심방 오신 거다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가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 다일천사병원의 협력 병원으로 섬기게 된 것 하나가 잘한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하시고 신앙이 깊은 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악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낼 환자랑 다일천사병원 환자가 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낼 환자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탐욕이 많은 인간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믿는 것은 나의 그런 죄성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다일천사병원에서 오시는 환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섬길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커서 할 수 있습니다. 협력병원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겠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함도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개인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햄스터가 아무리 열심히 쳇바퀴를 굴려도 주인이 햄스터를 밖으로 내줘야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도 저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연세속편한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병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병원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제가 아니어도 병원이 잘 돌아간다면, 저는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키실지 모르지만,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단 한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세속편한내과의 지경도 넓어지고 이 병원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의료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어 집니다.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다른 의사선생님들께 조언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반찬이 갈비찜입니다. 나눴고 섬김은 갈비찜과 같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살면 밥먹을 때 가장 맛있는 반찬을 빼놓고 먹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돈만 벌고 자기일만 하기에는 너무 귀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눴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있는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의사입니다. 저희보다 시설이 좋고 돈 많고, 능력있는 병원이 많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제일 약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일의 식구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일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의 멘토이자 영웅입니다.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일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저의 영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지라도 사역 포기하지시지 말라는 것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뷰 · 사진 / 김래홍대리(다일천사병원)





(왼쪽부터)네팔다일공동체 해원협 이진선, 류성은, 김효은 간사



네팔출국을 앞두고 네팔에 대한 교육 중



서로를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일 평화의 마을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어느 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추운 평화의 마을에 항상 겨울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찾아와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묵안리 마을 사람들은 나물을 캐러 산과 들로 다니고 봄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마음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비취 상처받고 닫힌 마음을 녹이시고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매일 깨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또 존중 하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닫으며
평화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D.T.S 훈련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D.T.S 훈련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후원회원님과 벗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주간의 D.T.S 훈련을 마치고 네팔로 가는 발걸음

- 훈련 소감문 중 발췌

김효은 간사(2012년 네팔다일공동체 해원협파송)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움이 좋으니이다.”

영성수련 1단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DTS훈련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세 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주님께 저를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백지가 되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과 일치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불안함과 초조함이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등 돌릴지라도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초조하고 겁내지 않게 조금씩 나아가려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DTS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어김없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이 마음을 주십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짧다”라는 말을 무색케 할 만큼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네팔에 가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류성은 간사(2012년 네팔다일공동체 해원협파송)

훈련을 받으며 가장 인상 깊고 저에게 와 닿았던 것은 바로 “노동기도”였습니다. 하루 세 번 언제나 그날에 주어진 노동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조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 가운데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노동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 이곳, DTS 훈련장이 광야 구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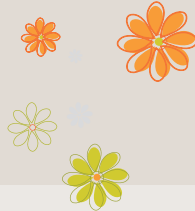
저 나와 이곳 묵안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쓸 수 없고 세상 문화와는 완전히 단절 되어있는 이곳 묵안리가 광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하기위해서 잠시 나의 소중한 상황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노동기도가 더 은혜롭고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찬송이 흘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 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선 간사(2012년 네팔다일공동체 해원협파송)

DTS기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고,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채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글자로 표현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왔던 부분들을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적으로는 비록 힘들지만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네팔에 가기 앞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곳에서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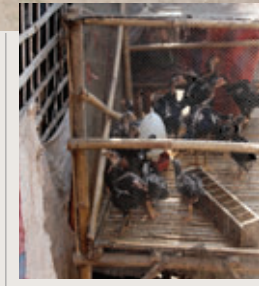
2주의 DTS기간은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 더욱이 난 첫 1주일의 대부분을 방황으로 보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 다일의 기도에 적응이 되고(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기도문들과 찬양들이 나의 마음에서 읽어지고 불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훈련을 마치려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기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만큼만 허락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네팔 땅에서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 1년 동안 네팔다일공동체에서 활동할 세 명의 간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희망의 뽕 모앗(달걀)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 중 지뢰피해 마을인 쓰룩뿌억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만나는 익숙한 모습 중의 하나는 지뢰를 잘못 밟아 한 쪽 다리를 잃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심 짐작해 봅니다. 가진 것 없어 가난한데다 몸까지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눈에 띄지 않는 마을 깊은 곳에 자리잡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이 마을에 먼저 예배당을 지어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곳곳에 우물을 파서 샘이 마르지 않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께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닭을 키워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보았고, 처음엔 세 가정에 닭 다섯 마리로 시작했습니다.

‘닭 다섯 마리를 그냥 팔아버리는 건 아닐까’ ‘아니 잡아 먹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술한 염려도 있었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력에 대한 의지에 대해 믿음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닭지원 사업의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보았더니 집 근처에 작은 병아리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어미 닭은 근엄하게 달걀을 품고 앉아 있고 또 어떤 집은 인공 부화장을 만들어서 닭의 수가 50여마리가 되도록 잘 키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우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마을 주민들께 부끄러웠는지요. 뼈저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치 못한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구걸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리가 하나 없을지언정 그래서 지금까지 구걸을 하며 살아온 인생일지언정 이제는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쓰룩뿌억입니다.

닭 다섯 마리와 닭장을 지어 드립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닭을 키우며 새 희망을 낳을 수 있도록

달걀을 품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닭처럼,

삶의 희망을 매일 매일 낳아가는 싹뚝뚝 마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정 \$100씩 닭지원 사역에 함께해주세요 (문의 : 02. 2212. 8004)



“ 가슴으로 주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

작년 3월 중순,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늦은 밤 도착하였기에 착륙을 몇 분 앞두고 기내 밖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내려다보이는 캄보디아를 보며 앞으로 1년 동안 섬길 땅이라는 생각에 그 여느 해외여행 때와는 사뭇 다른 몽클함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빈민촌 중 한 곳, 프놈끄라움. 다일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는 곳. 이곳의 아이들은 다일의 밥퍼와 빵퍼사역으로 극한 굶주림을 면하고 있지만 배움에는 너무도 목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담당하는 사역 중 하나는 다일센터와 프놈끄라움 중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가운데 처음 아이들을 모집하고, 정이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잘 몰라 오해도 많았지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훈계를 감사히 받을 줄 아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수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나날이 실력도 늘어 이전 성경말씀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의 저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은 교육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재능일지라도 캄보디아에서는 너무도 감사하게 쓰임 받는 달란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1~2평 정도의 집에서, 너털너털해지고 다 떨어져나간 나뭇잎 벽으로 둘러져 있는, 다 무너져가는 대나무 바닥에서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한국에서 오는 후원금으로 집짓기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담당사역은 빵퍼입니다.

빵퍼는 센터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학교수업으로 인해 밥을 먹으러 다일센터에 올 수 없는 빈민 아동들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빵 개발과 함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는 많은 한국 분들께 센터 소개를 하고 캄보디아 스태프들과 원활하고 즐거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스태프, 그리고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파송된 제빵사가 한마음이 되어 매일 수작업으로 하루에 약 1,000개 이상의 빵을 구워냅니다. 빵퍼의 모든 캄보디아 스태프들은 다일밥퍼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자란 빈민가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본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보며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며 역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을 내어줄 줄 안다는 귀한 가르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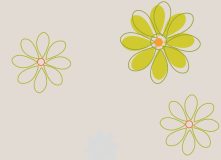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배풀려고 왔던 제가 오히려 배워가는 것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의 땅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다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성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 분들에게 수고와 감사를 전합니다.

어쭈 프레이야 예수!

글 / 이명진(해원협파견단원)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베트남은 건기에 들어서며 날씨가 더욱 더 뜨겁고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 못지않게 물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공공요금에 올랐는데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10%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오르는 물가만큼 생활고를 해결하려는 날치기 같은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이 심해서 그 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호치민 시내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메어 옵니다.



헝시바 목장과 땅의 만남

밥퍼 센터에서 식사하는 고아들 중에 땅(여, 15세)이라는 아이의 딱한 사연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끼니를 걱정해야하는 땅은 중학교를 다녀야 할 15살이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길거리에서 오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땅의 할머니는 땅을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먼 거리의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베트남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토바이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오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땅은 자전거로 30분 넘게 타고 가야 학교에 도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의 자전거는 많이 낡고 고장이 자주 나서 학교 가는 길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땅의 어려움을 도울 방법을 찾던 중에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헝시바 목장(구역)의 성도님들이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다는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쓰여 진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헝시바 목장(구역)의 성도님들 덕분에 땅에게 새로운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 자전거를 선물 받은 땅의 시선은 새 자전거

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뒷자리에 쌀 20KG도 함께 실어주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웃음 지으면서 기뻐하며 고맙다는 말과 자전거를 전해주고 돌아가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줍니다. 땅을 알고 지낸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땅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불편했던 자전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늦어진 공부지만 즐겁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헵시바 목장(구역)의 성도님들 바람대로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신천장로교회 비전트립 2기

신천장로교회 비전트립 2기 32명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베트남 밥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대부분 중고등부와 청년부로 이루어진 팀은 오전에는 베트남다일공동체가 후원하는 빈잔지역에서 마을 입구와 넓고 오래된 가정집과 흑목고아원을 방문하여 청소와 페인트칠을 하였으며, 고아원 아이들에게 간식과 학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흑목고아원은 가축을(돼지, 닭, 오리) 키워 시장에 내다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돼지우리를 본 비전트립팀은 특식으로 베트남 전통 음식을 먹으려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새끼돼지 5마리를 선물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밥퍼 센터에서 매일 200여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식사 대접과 준비해온 옷, 간식, 학용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밥퍼 센터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먹고 아낀 돈으로 천사회원(20,000,000동 = 약 1,100,000원)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잘해보지도 못했을 설거지와 굶은 일들을 하며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과 휴식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밥퍼 센터의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 드리고 도와 주기 위해 땀 흘려 봉사한 비전트립팀의 사랑이 베트남 밥퍼에 고스라니 전해져 흘러 넘쳤습니다.



소감문 문은애(천안 신천장로교회 청년부)

한국에서도 새벽기도라면 상상도 못했는데 이 곳에 와서 5시 15분에 그것도 매일 모여 QT로 나누고 밥을 먹고 아침에 페인트칠과 물화사역으로 저녁엔 밥퍼 활동을 통해 스파르타라고 할 정도로 강행군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지금 글을 쓰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아직 하루가 남은 지금 나는 많이 아쉽다. 부족한 나를 조장이라고 따라주고 또 옆에선 친구들과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위로하고 걱정해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했다.
 우리들의 봉사,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땅 베트남에 뿌려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은행 우수사원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센터 봉사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 각 지점의 우수 사원에게는 해외연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최종적으로 해외 연수지로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센터가 결정된 후 일주일 간격으로 30명씩(총 90명) 3주에 걸쳐 3번(3월8일, 3월15일, 3월22일 예정) 밥퍼 센터에 방문하여 봉사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은행 우수은행원들이 받은 해외연수 시간을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 하시니 과연 우수사원 답습니다. 봉사해 주신 우리은행 우수은행원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깊이 전해 지셨기를 기도합니다.

글/ 이종현 지부장(베트남다일공동체)



네팔 마느하르의 밥퍼 아저씨

돌아간 내 나라 네팔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마치 산에서 옷만 입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 질문 끝에

“내가 다일에서 밥을 통해 새 힘과 새 삶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만나는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고향,
네팔의 마느하르 강변에서 하루 한 끼 그 걱정만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니다.
많은 청년들도 다일의 섬김과 나눔을 몸으로 체험하고 배워서
각자의 사명실현지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길 말입니다.

그 시작은,
아시아다일비전센터에서…….

밥퍼의 '밥심' 캠페인

밥심 캠페인 하나, 옷퍼(O'ffer)

밥이 아닌 옷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 입은 옷은 올해도 안 입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옷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간혀있는 옷장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주인 만나

즐겁고 기쁘게 입혀서 멋지게 뽐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밥퍼나눔운동본부 황선아 실장 02. 2214. 0365)



밥심 캠페인 둘, 아름다운 밥퍼나눔운동

아름다운 밥퍼나눔운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운동1. 오병이어 기적만들기

내가 마시는 커피 한잔 소액후원이 노인 2명의 점심을 해결 할 수 있고,

아시아 빈민촌 5명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오천원, 이천원이면 가능합니다.

운동2. '아밥의 날' 아밥가게, 아밥기업 되기

'아밥의 날'이란 1년 365일 하루를 정해 그날의 수익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나눔의 날

운동3. 밥퍼365 생명나눔 릴레이

특별한 날 특별한 나눔이 있습니다.

돌, 생일, 결혼, 창립일 등 다양한 기념일을 하루 배식비(200만원) 후원으로

밥을 나누며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나눕니다.

● 문의 02. 2212. 8004, 02. 2214. 0365 / E-mail babfor@dail.org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밥퍼나눔운동본부



밥퍼는 축복의 통로다 - 송실대학교 / 최지혁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은 '더 많이 받은 것을 받지 못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건강한 육체, 물질이 있어 그것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밥퍼를 접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해준 다일공동체에 감사한다. 앞으로 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낮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

밥퍼는 세상을 소통시키는 통로이다. - 외교통상부 / 민재훈

밥 푸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바 보다 한 끼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풍만감과 그들이 표현하고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은 밥을 푸는 사람들의 보람으로 다가온다. 서로간의 훈훈한 정이 교환되는 뜻 깊은 장이 바로 밥퍼 인듯하다.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봉사자인 나 또한 마음이 배불러왔다.

밥퍼는 행복나눔이다. - 웅진홀딩스/강미숙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누는 내가 행복을 만드는 소중한입니다.

한센치고 캠페인

다일공동체에서는 매일 최일도 목사님의 행복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은 독자가 만들어 주는 행복편지인데요, 어느 날 한분으로부터 감동의 독자편지가 왔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의 르은이라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점심 식사를 한센치고' '식사값'을 후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 부터, 나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나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점심 먹은 셈' 치고 "한 썬치고 캠페인"에 동참해 르은이를 살려주세요! 아픈 심장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르은이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겁나는 수술이지만 힘을 내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수술비 3,000만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국민 467701-01-12831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02-2212-8004



2012.03.11.발송된 행복편지입니다.

“
**사순절 기간
점심 금식으로...**
”

독자편지/
유양숙님

... 최목사님~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아하목사님의 행복편지부터 읽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를 연발하게하는 최목사님을
가까이서 뵈게 된 것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저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한결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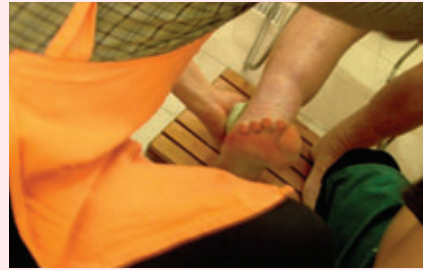
캄보디아소년, 르은이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계좌에 입금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답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잠깐 짤을 내어 글을 씁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점심밥 값으로
월 육만오천원을 월급에서 미리 공제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두 주 이상 안 먹어도 환율이 안됩니다.

구내식당을 직장 상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저렴하게 운영하려다 보니
나름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기간 동안
제가 점심을 금식하면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선생님께
조용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기간동안 금식하며 점심비용을
불우이웃돕기에 썼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너무 흐뭇하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점심 먹은셈치고, 근검 절약하면서
의미있는 일에 쓸 기회가 주어져
얼마나 기쁘지요.
사순절 기간 점심 금식으로 모아지는
작은 뜻과 정성을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를 살리는데 보낼 수 있어서
일체, 은혜, 감사가 넘칩니다.
아하!!



01 <밥퍼> 변은수 돌기념 봉사

02 <다일천사병원> 목욕봉사

01 밥퍼니눔운동본부

기념일 봉사

돌맞이 기념과 30주년 결혼기념

첫돌 맞은 변은수와 결혼 30주년을 맞은 조기풍 김란은님 부부.

이제 첫돌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한 은수 가족도, 30년을 함께 세상을 살아오신 조기풍·김란은님 부부도, 살아 온 시간은 수십년의 차이가 나지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마음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두 가정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시립대와 함께하는 Happy Day!

밥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학교 시립대 학생들의 Happy Day!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밥퍼봉사에 천사병원봉사와 쪽방도배와 청소까지 겨우내 목은 때를 벗겨낸 Happy Day! 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효도축제’

가정의 달 5월, 매해 밥퍼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르신들의 즐겁고 기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_02. 2214. 0365(밥퍼니눔운동본부)

02 다일천사병원 소식

마취약 후원

다일천사병원이 재개원 후 일 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실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일병원의 신미란 과장님과 남북메디텍의 도움으로 마취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마취약을 새것으로 교체해야하는데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전신마취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환우분들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마취약 sevoflurane 및 컨테이너 구입에 150만원 상당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환우의 방문

다일천사병원에 조금은 독특한 환우분이 찾아오십니다.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지난 30년 간 영어교사로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매 주 찾아오셔서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목욕봉사를 받고 돌아가시는데,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도 발길이 끊겼다. 다일천사병원이 지금 유일한 친구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더욱 감사합니다.

조선족 환우

다일천사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치료 받으시던 조선족 환우 한 분이 심한 황달로 입원 하셨습니다. 협력병원의 도움으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진행성 암은 아니기에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사정상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속앓이를 할 뻔 했다

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병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꼭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온메디칼 약봉지 후원

시온메디칼로부터 약봉지를 후원받았습니다. 약제기를 이용해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어렵고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일제약 의약품 후원

영일제약에서 의약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의약품을 후원하시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지지는 원치 않으신다고 조심스러워 하시며, 이 약품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진료에 쓰였으면 좋겠다며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업체의 아름다운 의약품후원으로 다일천사병원에 큰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속편한내과 업무협약

연세속편한내과(원장 이승환)와 다일천사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다일천사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를 정성껏 진료해 주시고, 내시경과 심초음파와 같은 전문 검사도 시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외된 환자들이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분야의 협력병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_02. 2213. 8004(다일천사병원)



03 <다일복지재단> 등반대회



04 <예향어린이집> 3월 생일파티

03 설곡산다일공동체 다일복지재단 전 직원 등반대회

다일복지재단 전 직원들은 자유의 길과 사이길을 걸으며 응답봉까지 4시간가량 등반을 하였습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 D.T.S.훈련생들이 등반대회를 위해 3일 동안 산길을 닦아놓아서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뜻 깊은 등반체험을 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세린교회 집회

집회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르은이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르은이의 수술비에 동참하여 1만원 이상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후원금이 89만원이 모였을 정도로 세린교회 권사님들의 나눔의 정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새 단장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이 아름답게 단장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 직원이 하나되어 단장을 해서 그런지 새 단장된 사무실에서 직원들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설곡산을 방문하는 벗님들을 위해 멋진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으니 꼭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새봄, 손님맞이 준비

봄 손님으로 오실 여러 벗들을 위해 야외 테이블과 야외테크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관심이 없고 소외되었던 낡은 테이블은 아름다운 테이블로 변했고 빼그덕 거리

던 데크는 튼튼해 졌습니다. 올 봄 첫 손님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설곡산으로 수련회오세요

동송교회 청년회 겨울수련회(2월 29~3월 4일), 장안제일교회 셀 리더십 기도회(3월 4일), 세린교회 권사회 기도회(3월 12~13일), 온누리 주향한 성가대(3월 24~25일) 대관, 대어 문의_031. 585. 2004

04 예향어린이집 생일 축하 파티

3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는 모두 5명입니다.
*사랑반-김현민, 최현지 *소망반·김준우
*행복반-류건찬, 김수민
3월엔 신입 영, 유아들이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어 합니다. 생일잔치가 시작되어 앞에 나온 친구들이 엄마를 찾고 영영 우느라 식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원장님의 기도 후 케이크에 불을 붙여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자, 울던 아이들도 노래만큼은 크고 우렁차게 부릅니다. 선물도 나누고 활짝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고 파티를 잘 마쳤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5 필리핀다일공동체 다일드림유치원 제1회 졸업식

지난 3월 21일에 다일드림유치원 제1회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23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습니다. 이들이 필리핀을 개혁 할 꿈나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세요. 제2회 유치원생은 만 4세 아동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6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의 새식구

추고은, 신경숙, 박예나 간사님들이 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다일의 NGO 단원으로 와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이들로 인해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1년 동안 세분의 간사님들이 건강히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자원봉사

대구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단(30명)이 하나투어를 통해서 다일비전센터를 찾아와 사물놀이를 보여주었고, 후원하신 물품(수건, 차약, 비누 등)은 유치원 졸업식 선물로 유용하고도 풍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루 급식비 60,000원
한 주일 급식비 300,000원
한 달 급식비 1,200,000원

06 네팔다일공동체 박종원 신임원장 부임

8년 동안 미주다일공동체 원장으로 섬기시던 박종원 목사님께서 한국 다일공동체에



05 <필리핀 다일드림유치원> 제회 졸업식



08 <네팔다일공동체> 원장님을 환영하며



07 <중국>이중원아버지, 김영애 어머니 송별식

서 DTS 훈련을 마치고 지난 3월 19일에 네팔다일공동체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스텝들은 새로운 원장의 부임에 따뜻한 마음과 큰 소망으로 열렬히 환영해주었습니다. 팀세나 부원장님은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사람들과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는 신임 원장님을 보며 네팔에 1년은 산 사람 같다고 합니다.

네팔 밥퍼 아이들에게 고기반찬과 과일을 먹고 싶습니다.

하루에 1~2끼니를 겨우 먹는 네팔 아이들에게 네팔밥퍼에서 만큼은 가끔 고기반찬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이미 사치가 된 빈민촌 아이들에게 가끔 과일을 먹고 싶습니다. 스텝들과 기도하며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1주일에 2회(화, 목) 고기반찬, 1주일에 3회(월,수,금) 과일을 배식하기로 말입니다. 지난 22일(목)에 처음으로 포도를 배식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반 이상의 아이들이 포도를 처음 먹어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1주일에 최소한 3회는 과일을 먹고, 2회는 고기반찬을 먹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방에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네팔밥퍼 주방은 매우 열악합니다.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것입니다. 가스불과 큰 밥솥, 큰 국솥, 식판과 수저, 컵...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늘과 생강과 기타 갈아야 하는 것들과 모두 원시적으로 돌로 빻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믹서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냉장고입니다. 하루 300여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 작은 냉장고 하나 없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해서라도 후원받아야겠다는 말에 스텝들 환호성이 대단합니다. 네팔밥퍼 주방에 소박한 냉장고(50만원/500불)를 후원해주시길 천사를 기다립니다.

스텝들의 발이 될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정류장도 없는 버스를 타거나 급할 때 가끔 이용하는 택시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는 네팔다일공동체 스텝들은 걷거나 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밥퍼 주방의 가스를 사올 때나 급히 급식재료가 필요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박종원 원장님의 \$100 불 후원으로 자전거 한 대(10만원/\$100)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대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팔다일 가족들의 발이 될 자전거를 후원해주실 천사도 기다립니다.

07 중국다일공동체

이중원 원장님, 김영애 부원장님 귀국

이중원 아버지, 김영애 어머니께서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두 분의 사랑의 수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보다 다일어린이집 온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학용 본부장님, 이희준 부분부장님 입국

김학용 아버지, 이희준 어머니께서는 5년

만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사이 부쩍 큰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잘 살겠습니다!

한해연 취직

해연이가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되어 상해로 떠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들을 돌보다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해연이를 온가족이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3개국어가 가능한 해연이가 회사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스스로 행복할 뿐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합니다.

양자선교회(대표 허 에스더) 방문

이미 캄보디아, 네팔 밥퍼를 후원하고 계시는 양자선교회에서 중국에도 일주일간 방문하시어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며 매일 맛있는 식사와 최고의 영양 간식을 준비해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다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양자선교회,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아이들 건강을 위해
2. 어린이집 1년 임대료 한화 7,200,000원의 후원을 위해
3. 원활한 새 비자 발급을 위해



"나는, 자랑스러운
밥퍼의 자원봉사자"



나이스그룹
지난해 12월 임직원들의 봉사에 이어 이번에는 신입직원들이 함께한 봉사. 오늘의 경험이 조화로운 조직생활에 스며드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두산중공업
동대문 적십자사를 통해 빵을 만들어서 밥퍼를 방문하셨던 두산중공업 가족봉사단. 잊지않고 직접 밥퍼 봉사에 참여하여 행복한 가족의 모습 반갑습니다.



서울우유
3월부터 다시 시작된 올해의 첫 봉사.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래주셨던 것처럼,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외환은행내 밥퍼봉사 신청자가 항상 차고 넘쳐서 인원선정에 고심하시는 외환은행나눔재단. 그 변함없는 열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은행노동조합
올해 밥퍼봉사에 다섯번 참여 목표로 첫 봉사에 참여한 우리은행노동조합.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웅진홀딩스
한명의 꾸준한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자가 확대 참여된 웅진홀딩스. 섬김의 마음이 이어짐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베이코리아
젊고 건강한 봉사동호회 퍼네이션의 이베이코리아. 같은 복장입고 같은 마음의 젊은 에너지로 하루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지멘스
자유롭고 활기찬, 열정적인 지멘스 봉사할 땐 정성다해 각자 열심히, 봉사후엔 즐겁게 하나되는 멋진 봉사팀입니다.



현대상선
스텝들의 별다른 도움이 없이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하는 현대상선. 매번 참여하는 분들은 다르지만, 섬기는 마음은 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3월 1일~3월 29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3월 신규후원

서장선, 송남영, 무명, 김용성, 김윤호, 한국푸드팜 주식회사, 김성진, 박관순, 김수지, 김은자, 박남주, 장은경, 김현옥, 강상현, 허은순, 포이에마교회제 여성도회, 주식회사 에스엘엔씨, 한서라이온스클럽, 강지원, 배호수, 황교안, 김숙자, (주)포콘스정략학, 나이스그룹, (주)우리은행, 안예신, 강윤정, 김민희, 김형진, 정중녀, 김효진, 성풍교회, 이경석, 김현수, 백연숙, 안경환, 한춘복, 점심한까닭, 박미순, 권애경, 안정아, 차정현, 최우형박미선, 김현수, 다일천사회원, 노할, 김은자, 이혜숙, 김선형(르은이), 최경화, (주)창조게릴라, 김경아, 최문재, 최우영, 채민수, 한기혁, 정명근, 이경희, 이체, 광상원, 이주연, 정준모(르은이를위, 이한호, 지준석, 르은이수술비, 박강희, 천사병원식당모금함, 박혜숙, 이숙자, 김기주, 박유경, 영일제약(주), 이주아, 예수님께감사와 영, 김형근, 장용수, for르은, 최소영, 박정은, 오송열, 배열성, 임규용, 조현주르은수술비, 조은성, 전창익, 유길정, 구혜련, 이수현, 차상도, 행정연수고위정책, 임종욱(미스콩), 르은의붉은심장, 이후청박정화이원석, 양시영, 안택수, 서정복, 김정자, 서미경, 남복현, 자카르타민상현, 강지혜, 이상미, 김은희, 이선희, 이은영, 김은영, 문진, 르은이후원이평화, 구교찬, 김영옥, 우리은행 노동조합, 윤상은, 김용구, 김용현, MLLEKIMJAENAM, 유성재, 홍성아, 정석정, 심선희, 르은이사랑, 박희선, 조영랑, 이한음, 박기영, 르은수술비, (주)웅진홀딩스, 김길한, 김광진, 김선구, 권오수, 신현택, 임귀희, 유선정, 김진혜, 자갈타하유가족, 정진애, 최영애, 홍준기, 유경석, 이정남(김성만), 장영애, 최석재, 박찬선, 르은이, 노경진, 송미자, 정하봉, 임수현(임태혁), 김남균, 이춘자, 정구문, 김낙중, 라온아띠5기, 이권형(원공인중개사사무소, 명상의집자애, 김영애, 이상호, 박청수교무님, C-CHANNEL, 유일산업선대, 이형철, 강홍순, 지멘스(주), 황병식, 조선숙, 김유화, 배현태, 동대전교역자, 부천중동교회, 장현숙, 한영호, 늘소망교회, 원치우, 김학윤, 던햄비코리아(주), 최관우, 이복영, 이정숙, 박미애, 이순, 김설희, 정희라, 예정희, 진예원, 박선애, 최명희, 박선자, 박효준, 김영은, 송영진, 박종후, 한미희, 장형수, 양미숙, 박영준, 최우슬, 권유리, 르은이돕기, 강갑주, 세린교회권사회,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신한생명보험(주), 하나투어김기창, 김윤성, 정만희, 박영돈, 김래현저금통, 김도현저금통, 홍경화, 이용권저금통, 꿈터어린이집저금통, 늘큰축복반(세요, 최영숙저금통, 의정부광영교회, 김시현저금통, 김나현저금통, 안연숙, 최정옥, 김주희, 하홍대, 임호정, 지정연, 김홍기, 이상근, 이명란, 이은정, 최미일, 김덕중, 정유신, 김재범, 조한우, 엄민우, 정재영, 정연우, 손병윤, 김태연, 홍남숙, 오병섭, 김영조, 김동열, 정옥진, 남성숙, 이준우, 르은이후원, 임선하, 유원근, 차용학, 허명자, 주명훈, 이수영(이승재), 정영희, 석연옥, 이태호, 황예지, 양동훈, 이상배, 고용석, 김진환, 이정열, 이창식, 이주은(이주식), 유재숙, 허규, 손태인(순성구), 유정희, 윤용중, 정해련, 조현숙, 이호열, 정성구, 김태희, 주철기, 한송이팬클럽(장성준)3/24, 함노순, 문현호, 르은이햏팅, 이응철, 이영덕, 강순주, 정경숙, 안수연, 황태식, 정승준, 전근석, 이봉선, 오복순, 안재연, 이동섭, 조은영, 송승희, 김순금, 천영미, 박영신, 하순채, 윤순희, 유경희, 제건호, 박미순, 이정현(이재인), 홍영란, 이강석, 박미현, 정연동, 최지혁, 박황제, 이우미, 최태영, 공란식, 이혜숙, 김미영, 류근정, 차현해(차용학), 김종석, 안대근, 김영옥, 김왕기, 이광연, 정만수, 주현숙, 우연희, 표준자, 김진우, 김진영, 빨라,부라이트, 이성연, 이선하, 강태희, 김민자, 박정하, 차차차, 김형진, 이영란, 박막동, 최혜련, 문경환, 김대현, 임순옥, 김동국, 김지철, 이숙주, 신우회회총각, 지방행정연수원고급리더, 김창기, 서갑순, 이순선, 김대엽(김정철), 변성용, 이동원, 박영자, 정화순, 김용건, 윤현숙, 이우성, 백은호, 박경자

바파나눔운동 후원

신민숙, 양순화, 삼진제약(주), 변종범(변은수 돌기념), 한우리, 강찬훈, 이베이퍼네이션, 배화여대HOW, 옥환선교회, 조기풍 김란은 (결혼30주년기념), 소망교회 봉사팀, 김수길, SK텔링크, 박종일, 오규식, 감사랑, 배화여대 HOW, 이종욱, 지혜인 김성철, 김봉석, 헤림 교회, 무명, 서울메트로, 견해진(휘슬러비즈쿠엔), 윤현숙, 정신남, 수도권산악회, 엠엔글로벌, 서장선, 김화수, 인자교회, 정희주, 대한지적공사(동대문지사), 변창재 이현신, 이병철, 정의식, 나이스그룹, 최경근, 다일교회, (주)에이엠지코리아, 흥국생명,흥국화재,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러브피플, 광상원, 최다영, 국방홍보원, 두산중공업, 리은행노동조합, 이일옥, 최석재, 광현교회, 양순화, 신민숙, 권혜진, 윤현숙, 정신남, Sk텔링크, 던햄비

후원물품

2/16 맘애펜(유명환) 떡갈비15개, 바비큐 10kg
2/18 사조대림 만두 713봉
2/21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2/22 사우트코리아 김치 10kg
2/23 장재경 쌀20kg 2포
2/24 티브로드 김치 40box
2/28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3/6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3/7 강민수 이초아 말린나물(시래기) 2포대
3/9 웅진홀딩스 쌀20kg 15포
3/10 지멘스코리아 김치냉장고, 쌀20kg 9포, 쌀4kg 2포
3/12 홍예은, 홍주은, 홍은석 쌀20kg 10포
3/13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 황병식 쌀20kg 1포
3/14 서울우유 두유 1,008개
3/15 동방유통 육계 40마리

다일천사병원

백연숙, 김현숙, 김형진, 한춘복, 강윤정, 김현자, 강홍순, 손준우, 진명순, 강홍순(이선옥), 경광현, 알리안츠글로벌, 서울중학교, 박종찬, 박영자, 박문정, 영일제약(주), 시온메디컬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주)소명철강, 지춘란, 서용란, 평생후원자,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한기모, 김기태, 오솔, 김인식, 리일, 훈춘시 영광제빵(빵후원), 훈춘시 경제국 청년회(쌀후원)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주NSHC, 고명진 목사, 서태인의 7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 지구 2002-2003년 회장단,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 회원일동, 오

봉택, 권혁용, 대우엔지니어링OB일동, 한라공조, 김재원, 가야로타리클럽, 나주교회, 광주별열교회 정병일 집사, 영광교회 기우희, Brad Joo, 김성재, 김순자 52사랑회, 52사랑회, 조경자, 김미자-(주)한성랜드, 아룬회 이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강사팀, 이재영, 최재자, 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중앙청과, 보리교회, 루살렘성가대, 성교회 김동영 집사,이명진, 구미안디옥교회, 이미행, 박은옥, 성미숙, 박숙자, 노부아, 싸론, 캄보디아한국스텝, 김태영, 김재윤, 김시은, 이용현, 이지현, 김성재, 이모세, 엄기봉, 라온아띠 7기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 오병이어교회,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한상소, 신동환, 김건희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신천장로교회비전트립2기(\$1,000의 기적), 대한 어린이 집(\$100의 기적), 안연숙,(\$100의 기적), 우리은행 300만원, 오로운 초코파이 10box, 우리은행 우수회원 30명,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최철우지점장의 14명, 신천장로교회 백광호전도사의 31명, 포스코ICT 김광석 소장 외 7명, 최용해(\$100의 기적), 안연숙, 최다현, 최다원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로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후원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매일 발간되는 「다일공동체」에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지로용지는 각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지로후원 신청전화 02-2212-8004

* 지로번호 ▶ 7657249(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3. 신용카드를 통한 후원은

www.dail.org로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행복나눔〉 참여

가게 혹은 기업에서 수익금의 1% 또는 일부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참여

- 후원 계좌** _ 국민은행 010-01-0975-871
제일은행 150-10-013794
농협 031-01-433638
기업은행 017-033086-01-038
신한은행 140-00-5428327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우체국 010983-01-003220
우리은행 014-039161-01-601

후원 문의 _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5-15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 _
TEL 770-813-0899

보험상품을 통한 참여

사랑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귀하의 보험료 일부가 다일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문의 : 02-2212-8004)

사랑의 보험 1°C(일도씨)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다일복지재단을 수탁자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연령별로 약 1~2만원의 보험료로 1천만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 복지재단의 비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전창근 원장 M 1-773-621-3981
E-mail jcgstory@yahoo.com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떠남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lesd@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프놈펜밥떠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huban12000@yahoo.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 및 준비된 영성가들이 은총의 문을 여는 다양한 기도 수련과 내적 치유 등 교회사 전통 속에 내려온 기독교 영성 훈련을 안내합니다.

<p>4월</p>	<p>4월 13일(금) ~ 4월 15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 4월 20일(금) ~ 4월 22일(일) : 다시한번일어서기 II (2박 3일)</p>
<p>5월</p>	<p>5월 04일(금) ~ 5월 06일(일) : 생명축제 (2박 3일) 5월 11일(금) ~ 5월 13일(일) : 다시한번일어서기 I (2박 3일) 5월 18일(금) ~ 5월 20일(일) : 다시한번일어서기 II (2박 3일) 5월 25일(금) ~ 5월 27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p>
<p>6월</p>	<p>6월 01일(금) ~ 6월 03일(일) : 다시한번일어서기 I (2박 3일) 6월 08일(금) ~ 6월 10일(일) : 다시한번일어서기 II (2박 3일) 6월 22일(금) ~ 6월 24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 6월 25일(월) ~ 6월 29일(금) : I 단계 아름다운세상찾기 136기 (4박 5일)</p>

* 다시한번 일어서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아름다운 세상찾기입니다. 아세찾기를 두 주간에 걸쳐 (I), (II)로 3개월 내에 나누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사회교육 강사

저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신간 밥심(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youngsun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침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밥...



밥심으로

Action
Now!



아시아의 빈곤 퇴치를 위한 아름다운 밥퍼 나눔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4년전 청량리 광장에 배고파 쓰러진 노인 한분에서 시작된 밥퍼나눔운동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아름다운 밥퍼나눔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한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099432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전화 :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